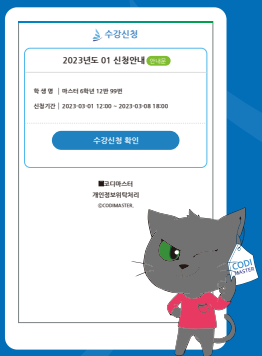
CODI MASTER

‘방과후학교’에 관한 수많은 시행착오,

그 끝은 코디마스터!



- ‘제1회 코디마스터 사용 수기 공모전’ 응모작 모음집 -

No.1 방과후학교 관리 플랫폼 「코디마스터」

CONTENTS

코디마스터 소개 및 현황 … 2

최우수상 수상작 … 3

우수상 수상작 … 8

입선작 … 13

그 외 참여작 … 22

「코디마스터」란?

「코디마스터」는 대한민국 대표 방과후학교 관리 플랫폼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과후학교 관리 업무를 1/20로 경감하여, 담당 교사 및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분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실현합니다. 회원가입, ID/PW, 로그인 및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문자 메시지 1통으로 진행하는「코디마스터」만의 차별화된 수강신청 방법은, 학부모님께 편리함과 함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사용 현황

2023년 상반기 기준

전국 학교 및 교육지원청 850곳

학생 170만 명

수강신청 1,000만 건

설문조사 2,000만 건

출결관리 3,900만 건

검증된 우수성

이러닝코리아 2018
우수기업 콘테스트

교육부장관상(大賞)

2021 중앙일보
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

에듀테크 부문 1위

2022 사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94. 2% 만족

〈최우수상 수상작〉

전주 효천초등학교
박은경 선생님

방과후학교에 관한 수많은 시행착오, 그 끝은 코디마스터!

저는 전라북도 전주의 한 초등학교의 교무실무사입니다.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도, 행정실무사도 아닌 제가 이렇게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의 수기를 작성하는 이유는... 저의 학교가 코디마스터를 사용하게 된 과정이 다수의 대규모학교에도 해당되는 리얼 현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 저의 경험담이 코디마스터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개교학교 1,2년차, 종이 신청서와의 전쟁

8년 전 저는 개발지구의 한 대규모 개교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과후 업무를 맡은 선생님은 기존 방식인 종이신청서를 받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진행하였는데, 학생수가 1500명이 넘는 학교였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3과목 ABCD타임 총 92개 타임을 개설해도 결국에는 수강생을 추첨해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단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과목을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허수로 지원하는 숫자를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방과후강사 23명과 교직원이 여러 명 붙어서 1000여장이 넘는 종이 수강신청서를 각 과목별, 시간별로 나누고, 시간별 지원자 명단을 작성해서, 동일 시간 중복지원을 일일이 확인하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최후 추첨까지 가고 보니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과목에 중복 당첨된 학생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학부모님들께 불신으로 계속 누적되었으며, 이렇게 2년을 진행한 결과 학부모 추첨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한 중복 오류에 대해 학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점점 더 강도 높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2. 개교학교 3년차, 급기야 전교 학부모 님 소환하다.

그래서 3년째에는 종이로 수강신청서를 받되(수십 명이 전년처럼 수작업으로 중복지원 신청서를 거른 후에)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교생 부모님을 강당으로 불러 공개추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복 오류는 계속 나왔습니다.) 추첨일 당일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강당에모여 있던 그 아수라장 같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학교 주위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수 많은 다른 문제들은 그저 작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고, 연차까지 사용해서 자녀의 방과후 추첨현장에 참여했으나 막상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은 학부모님들은 크게실망 하여 방과후학교 공개 추첨에 관한 강도 높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3. 개교학교 4,5년차 온라인 설문과 유레카, 그러나 여전히 노답

그리고 4년차.. 그 동안 그 많은 항의전화에 시달린 저는 종이 신청서를 과감히 버리고 '유레카'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설문 조사를 설계해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후에 그 데이터를 과목별로 가공하여 유니피커 공개추첨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간단한 생각의 전환으로 많은 사람의 시간낭비와 중복지원의 오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작성된 각 타임별 엑셀 신청명단을 가지고 시청각 실에서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녹화를 진행하며 유니피커로 추첨을 함으로써 공정성의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학부모님들이 자신이 방금 신청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염려는 같은 답변을 여러 번 제출하거나, 서로 다른 답변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것 때문에 수강신청 기간 동안 매일 100통이 넘는 문의와 확인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수 백건의 데이터에서 오류를 찾아 수정하고, 여러 번 응답한 답변은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최종의사를 확인하였으며, 23개 과목과 각 과목의 A, B, C, D타임 총 92개의 시트를 생성하여 추첨 자료를 준비하고, 92번의 유니피커를 돌려 시청각 실에서 공개 추첨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온라인 설문으로 수강신청 받아서, 명단을 정리해서 추첨 프로그램으로 추첨 돌려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단순해 보일수도 있지만,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은 150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 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엄청나게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저처럼 하루 종일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교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면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업무가 기피업무 1순위인지 수강신청만 겪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결국에는 백기를 들다, 코디마스터 승!

이렇게 유레카 설문과 유니피커 추첨으로 2년을 보내고, 제가 5년 만기로 다른 학교로 가야할때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유료 프로그램 구입을 고려했습니다. 누군가 설문과 엑셀, 유니피커만 다룰 줄 알면 되는데 하는 마음에 연간 120만원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혼자 맡아서 해 줄 사람이 없다...

다음 방과후학교를 맡은 담당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주장들은 프로그램을 꼭 구입해야만 하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학교로부터 코디마스터 추천을 받았고, 이후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통한 수강생 관리와 수강신청 추첨 등의 모든 일들은 방과후 행정실무사 한 사람이 다 커버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5. 다시 개교학교, 이제는 처음부터 코디마스터

그 후 제가 새로 옮긴 학교도 또 다른 개발 지구에 있는 12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는 작은 곳에서만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또 종이 신청서로 수강신청 할 것을 계획하셨고, 저는 이 모든 시행착오를 몇 년 동안 겪어 보았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유료 프로그램 구입을 적극 건의하여 그 결과 현재 이 학교에서는 개교한 첫해부터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별다른 민원 없이 순조롭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특히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 마련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가장 우려했던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코디마스터 측에서 방과후 행정실무사는 물론이고 방과후 강사들까지 전부 연수를 시켜주시면서 완벽히 보완해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간단한 수강신청 기능을 전체 학부모님들까지 사용하도록 하기는 많은 문의전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잠시였고, 지금은 해마다 신입생 학부모님들만이 문의전화를 주십니다.

6.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며 너무 좋은 점들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프로그램들에 비해 코디마스터는 방과후학교 전용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수강신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다 더 전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1. 수강신청 시 각자의 개별 링크로 들어가지만 여러 과목의 수강신청 상황들(과목마다 지원자 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학부모님의 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
2. 설정한 기간 동안은 스스로 신청과 취소버튼을 자유롭게 누를 수 있다는 점,
3. 요일별 중복지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4. 신청과 추첨 결과도 각자 언제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5. 학부모님이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의 절차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
6. 만족도조사도 편리하게 수강학생에게만 전달할 수 있고, 자료의 가공이 용이하다는 점,
7. 수 백 명의 수강생에 관한 각종 통계나 자료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
8.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격지원이 가능하고 문제해결이 빠르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마스터의 무엇보다 좋은 점은 "

9. 초기에 단지 최소한의 정보(학년 반, 이름, 전화번호)만 엑셀로 일괄 업로드하면 그 후에는 방과후 행정실무사 한 사람의 인력으로 커버 가능할 정도로 방과후학교 일 전체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10.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담당자로써 실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인 학부모님이 봤을 때도 프로그램이 직관적이면서도 추첨의 과정까지 모든 것이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7. 코디마스터 번외 편 – 다른 업무에 이용하기

자... 이쯤에서 다른 학교들...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어디까지 사용하고들 계십니까?

저희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위해 만들어진 이 코디마스터를 잘 활용하여 심지어 돌봄 교실 신청과 추첨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봄 교실도 공정하게 추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종이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코디마스터 방식으로 바꾸니, 세상 간단하고 공정할뿐더러,민원과 문의전화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8. 코디마스터 도입을 고민하는 많은 학교에게

사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디마스터로 결정하기까지 아무런 고민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단체 문자 발신 기능을 메인으로 하면서 양방향 확인 가능한 설문을 추가로 탑재하여, 학부모 알림과 각종 신청(방과후학교, 우유급식, 체험학습 신청 등)을 프로그램 하나로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 연동을 메인으로 하면서 설문을 탑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는 학교마다 그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천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이고, 수강생 추첨이 필요하고, 학부모님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려 된다면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은 학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것이라 고확신합니다.

제가 45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교의 2번의 개교과정을 거치면서, 온갖 항의와 민원전화를 받고, 참 많은 일들을 겪어본바 연간 120만원이라는 비용은 절대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저희 교직원들의 편의만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께 잘 전달될지도 모르는 종이 신청서나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온라인 설문식 신청방식, 그리고 공정한지 의심되는 기존의 오프라인 추첨 과정보다는 코디마스터가 운영하는 방식들이 훨씬 편하고 신뢰가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 사용자 입장에서 건의 드림

다만 한 가지 코디마스터 쪽에 건의하고 싶은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학교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학교도 올해 부터 돌봄 교실에 선정된 학생은 방과후학교의 정식 추첨 기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규제가 생겼는데, 현재로써는 이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제한을 부탁하는 방법 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한방식을 대비해서, 관리자가 일정한 명단을 등록하면 그 학생들의 수강신청 버튼을 비활성화 시킨다거나, 또는 1과목, 2과목처럼 설정된 과목 수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생긴다면 더욱 더 편리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고 수기 공모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제 의견을 살포시 전해봅니다.

〈우수상 수상작〉

서울 묘곡초등학교
최수인 선생님

방과후학교 업무관리에서의 코디마스터 사용 경험담

전교생 1,600명인 우리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자는 상당하다. 물론 지금도 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 관심은 학부모님, 학생들 할 것 없이 뜨거운 편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매 분기 초 강당의 모습을 그려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미소가 띠어지기도 한다. 등교 시간 30분 전…. 강당에 모여 프로그램마다 줄을 나란히 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 모여 있던 것도 이제는 방과후학교의 추억이 된 듯하다.
학생들이 뽑기에 당첨이라도 되면 뛸 듯이 기뻐하던 귀여운 얼굴도 생생하다. 하지만 공평하고 공정한 방과후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님, 학부모,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모여야만 했고, 이과정(뽑기)을 꼭 거쳐야만 했다. 이때마다 강당을 꽉 채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리학교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코디마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처음 사용할 때는 기대가 크지는 않았다. 학생정보, 강좌정보, 추첨정도에 초점을 맞춘 단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분기, 한 분기 시간이 거듭될수록 코디마스터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각종 설문, 자유수강자 관리, 강사료까지 원스톱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것은 방과후관리에 '안정성'을 가져다준 점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첫 번째 안정성은 바로 학부모님의 불안과 불신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문자로 전송되는 수강신청 URL에는 강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가정통신문, 신청기간, 프로그램, 수강료, 수업장소 및 시간, 강사소개, 계획안, 추첨결과 등 모든 것들은 회원가입 없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이었다. 이 덕분에 학부모님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많은 신뢰를 하게 되었으며 모든 정보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기에 문의 전화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지면 배부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안정성은 안전한 학생 관리다. 방과후수업은 주로 1,2학년이 많이 신청하는 편이다. 하지만 1, 2학년의 경우 많은 선생님의 돌보기가 필요한 학년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1,2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돌봄 선생님, 방과후강사님들께 1,2학년 학생별(분기마다) 수강내역을 정리해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하교지도와 안전관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선생님의 보호를 받기에 방과후수업에 이탈하거나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는 학생이 없다.

또한 학생이 여러 개 수업을 듣는 경우 동선 파악이 가능하기에 안전관리에 있어 편리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안정성은 통계, 관리업무다. 방과후의 많은 업무 중에서도 강사의 M출석부 기능, 자유수강자 관리기능, 각종 설문 관리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분기마다 신청 이후에 변심이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강사 스스로가 URL을 이용해 추가(후순위), 취소가 가능하고 그것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빠른 통계가 가능하다는 점, 자유수강자들의 신청내용과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교육청 보고 자료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지면 배부 없이 편리한 설문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한 점수통계가 가능하다 점 등등 많은 이점이 있다.

이렇듯 방과후학교 운영의 안정성에 이바지한 '코디마스터 시스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스템 덕분에 방과후 참여 학생, 학부모님들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우리학교 신뢰도 또한 더불어 상승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한 학부모님께 전화가 걸려 왔다. 전입생 학생의 어머님이었다. 그 어머님은 상담 차 전화를 주셨는데, 이전 학교에서 누릴 수 없는 체계화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놀랐고 공정하고 편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 '코디마스터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코디마스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사용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덕분에 오늘도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방과후 업무에 임하고 있다.

〈우수상 수상작〉

인천 해원초등학교
김현숙 선생님

코디마스터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프로그램

_누구에게나 쉬운 직관적인 메뉴 인터페이스

저는 지난 8년간 전국에서 학생 수 많기로 손꼽히는 학교에서 방과후 업무를 지원하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과 행정 등으로 방과후 담당선생님들의 버거운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보다 직관적인 메뉴로 접근이 쉬었던 인터페이스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충분히 말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방과후 지원 업무는 단순한 업무 보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 일정표 계획과 조율에서부터, 안내문 작성 및 배부, 신청과 취소 환불, 강사료 및 수용료 정산, 자유수강 국고지원 확인, 만족도조사와 민원에 이르기까지... 학기 시작 전부터 분기와 특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나면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작년부터 우리학교에서는 지면 배부 없이 온라인 배부만을 제공하고 있다.

_원스톱 편의성과 친환경 업무 도모

근무 초기만 해도 일부 부서의 수강 신청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며 선착순 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계속되는 민원에따라 개인과 업체, 민간 위탁의 모든 부서는 코디마스터 링크를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해졌지요. 물론 개인별 합산 금액에서 위탁 구분에 따라 소트해서 정산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분기별-월별-부서별로 학교 양식에 맞추어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스톱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담당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안 첨부 자료도 코디마스터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방과후 신청을 위한 안내문은 물론, 엄청난 서류 등 엄청난 양의 지면 출력과 복사본을 줄일 수 있었지요.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파일 전달만으로도 불필요한 종이를 아끼며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기에 지금의 작업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_코로나 시기에 더욱 큰 힘이 된, 코디마스터 홈 오피스

링크 재발송을 위한 업무 역시, 업체위탁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재택 방과후 지원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급한 발송 요청이나, 전화번호 변경, 담당선생님들의 자료 요청 등 시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에는 모바일 출석부까지 십분 활용하며, 출결 인원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확진자와 검사대상자 등의 즉시 보고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_코디마스터 너머로 보이는 로데브 여러분의 미소

데이터가 감쪽같이 사라져 다급해 연락하자 차분하게 응대해주시고, 당황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던 직원 분들의 친절함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9년도 2학기에는 학교 신축 건물사용으로 학적의 대이동이 일어났는데, 1분기 기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로데브와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도, 업체에서도 지금까지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_보다 과감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기대

저는 지금까지 코디마스터의 반별, 학생별 징수금액을 토대로 부서별 징수액과 환불액, 국고지원과 강사료, 관리비 정산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나름의 정산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정돈해 프로그램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환불 교정과 변수들이 달라 쉽지 않지만 말이죠.
로데브에 몇 가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수강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링크가 아닌 어플로 관리자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후순위(대기자)의 자동 등록과 확정 알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자유수강 지원금 잔액 알림이 링크 주소가 아닌 직접 입력해 발송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국고지원 취소의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용액과 잔액 확인 후 말이죠. 마지막으로 모바일 출석부에 메모 등을 기입할 수 있다면, 강사님들의 지면 출석부 지참은 더 이상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함과 노력으로 무장한 로데브 임직원 여러분, 내년에도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복 많이많이 받으셔요.

〈입선작〉

나산초등학교(전),왕산초등학교(현)
양보연 선생님

코디마스터는 감동입니다.

학교방과후코디 일을 하면서 모집 및 징수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알리미나. 수기로 모집을 받아서 추첨 을하고 자료 정리하는데 불편함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디마스터를 이용함에 있어 간단하게 정리되며 손쉽게 업무 진행할 수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코디마스터는 학기 초 학생 명렬표를 이용해 손쉽게 학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 분기 마다 학생들 명렬표를 보며 학년, 반, 번호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또한 손쉽게 한번 입력해서 1년 동안 전·출입 관리만하면 오류 없이 징수작업에 용이합니다.
또 무엇보다 모집 후 추첨을 통해 대기번호 부여부터 추첨 관리까지 어려운 부분을 너무 쉽게 결정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에듀파인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징수 업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합리적이며, 제일 좋았던 부분 중 첫 번째는 강사료, 수용비, 교재비, 재료비를 정리되어 한 번에 엑셀 파일로 받아서 징수파일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았으며 두 번째는 자유수강권(교육비지원대상자)관리 하단에 따로 명단이분리되어 전달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엑셀 작업 시 매번 학생들 이름 검색해서 파일을 따로 만들어 정리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디마스터는 학생 관리에서 지원대상자로 지정해 놓으면 매 징수 시 아이들을 따로 관리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디마스터는 코디들이 방과후 관리 및 업무 진행에 강사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파일은 쉽게 만들어 전달 할 수 있으며, 업무진행 시간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덕분에 일처리에 오류가 없어 방과후 박사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강좌 입력 시 위에서부터 입력되는 순서가 아니라 강좌명을 01.독서역사논술, 02.사고력수학 이런 식으로 앞 번호를 매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차시변경으로 인한 수용비 계산시 소수점까지 입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해 모집현황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따로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개인링크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이 무척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로 배정되어 코디마스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꼭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입선작〉

세종 다정초등학교
김지은 선생님

내 친구, 코디마스터

6년 전, 처음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일하기 시작한 학교는 전교생이 300명이 조금 넘는 개교2년차 학교였다. 방과후 시간표도 간단했지만 수강신청을 받고 나면 시간중복신청 학생이 20~30명이었고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도 중복신청을 걸러내지 못했다.)
내내 전화통을 붙잡고 통화하면 하루 이틀은 그냥 지나갔다. 겨우 수강신청명단을 확정한 후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그것은 수강료징수를 위한 학생별 금액 정리...
엑셀로 정리한 부서별 수강명단을 학생별로 모으고 그 학생들 금액을 하나하나 합산하여 정리하는데도 이틀은 걸렸던 것 같다. 중간에 취소전화가 온다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며칠이고 걸리기 일쑤... 한 달에 한번 스쿨뱅킹 합산을 할 때에는 모니터를 너무 봐서 눈물이 날 지경이 었다.
부서별 금액과 학생별 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겨우 끝내놓으면 다음달 스쿨뱅킹...힘들게 힘들게 계산을 해도 늘 금액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
일하기 시작한지 한 달쯤 지나서 코디마스터를 쓰기시작 했는데, 예전에 말을 타다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무궁화호에서 KTX를 타는 느낌일까...나에게는 과목별 금액, 학생별 금액을 자동으로 합산되고 수강신청 받을 때 중복신청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회원가입 없이 문자로 전송되는 링크접속으로 수강신청 되니 반가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 후 6년간 학교는 전교생 1,3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학교로 옮겼지만 코디마스터는 여전히 나의옆을 지키고 있다. 학생 진급처리, 설문조사, 출석부, 지원대상자 관리 등 쓸모 있는 메뉴들이 있고매년 조금씩 업데이트 되고 있는 코디마스터. 학교마다 운영실정에 따라 활용하기 부족한 부분들도있지만 분명한 것은 방과후 업무에 있어서 없으면 너무 힘들어질, 나의 일을 나누어질 수 있는 단짝 친구라는 점이다. 같이하자~친구야~

〈입선작〉

수원 송림초등학교
김선자 선생님

행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몸담은 지 15년이 넘었지만 현임 교에 발령받기 전까지 방과후 업무는 나와는 무관한, 어려운 업무였다.

업무를 맡고 있던 동료가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학교에 가든지 방과후 업무만은 맡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제일 기피하는 업무로 찍혔을까.

부서나 강사를 선정하는 일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제일 힘든 게 수강신청으로 보였다. 수강신청을 받는 날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그 때는 선착순 접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부서 강사들이 새벽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접수를 받았는데 항상 민원이 들어오곤 했다. 추첨을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담당자는 크고 작은 민원전화를 받느라 늘 골머리를 썩였다.

수업 시작 후에도 환불로 인한 업무처리로 늘 골머리를 앓곤 했다. 몇 년 전부터 나이스를 통한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였다. 수강신청 후에 수강학생, 교재비 재료비를 등록하는데 주말 하루 이틀은 꼬박 초과근무를 해야 했다. 아직도 사정은 크게 좋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몸담았던 전임 교에서는 강사료와 재료비 등 방과후 업무 관련 품의를 맡았지만 담당자가 보내주는 자료를 상신하기만 하면 되는 업무였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었다.

2021년 3월 1일부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주 업무가 방과후업무 지원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방과후 업무를 전담하던 코디가 사직을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다 담당교사 또한 새로 오신 선생님이었다. 다행히 전임자가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알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3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2일 화요일, 수강 신청은커녕 안내장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기가 막혔다.

오후에 코디마스터 직원이 학교를 방문했다. 컴퓨터에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깔고 전교학생 정보를 받아서 등록했다. 전임자가 짜놓은 운영계획표를 보고 강좌, 강사 등록을 했다. 종이로 출력된 안내장이 아닌 학부모 휴대폰으로 수강신청 안내장을 발송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수강신청 기간에는 문자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강사들 또한 자신의 부서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수강확정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추가신청, 취소, 출석체크도 쉽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니 업무 시간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수강생 추첨, 랜덤으로 추첨을 하는데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불과 몇 초 만에 당첨자와 탈락자가 정해져 나왔다. 어떠한 비리도 입김도 작용할 수 없는 공정한 과정이다. 후순위가 정해져 나오니 추가 선발에도 문제가 없다. 수강확정, 탈락 문자도 바로 보낼 수 있다. 얼떨떨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착오 없이 진행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 첫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행히 큰 잡음도 없었고 초과근무도 하지 않았다.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은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주셨다. 수강학생 명단이나 수강료 현황, 환불금액, 자유수강권 지원금이나 수익자부담금 또한 바로 알 수 있다.

각종 공지는 물론 설문도 문자로 하고 있다. 수강생 출석부를 만들 필요도 없다. 방과후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천 명이 넘는 학교에서 큰 어려움 없이 방과후 업무를 해내고 있는 것은 코디마스터 덕분이다.

얼마 전 방과후 담당자들 워크숍에 갔었다. 참석한 학교의 담당자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점만 토로하고 있었지만 우리 부장님은 당당히 말씀하셨다.

코디마스터 덕분에 우리 학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코디마스터 최고예요!!

〈입선작〉

안양 박달초등학교
이은정 선생님

3월 나에게 찾아온 코디마스터

학교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방과후학교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화면에, 내 눈앞에 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안정을 찾는다고나 할까~.

2022년 3월 1일에 박달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나는 중학교에서 수업계(시간표) 일만 10년을 했었다. 중학교에서 수업계가 학교의 꽃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발령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유예를 썼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발령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초등학교의 꽃은 방과후라고 했던가...

3월이 되기 전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발령받은 학교에 왔지만 중학교와 너무 다른 분위기와 업무에눈앞이 너무 깜깜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니 그 시간이 더 힘들고 막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0년간 학교에서 근무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며칠 안 본 교무실 교직원들께 "저와 함께 방과후 같이 하실 분?" 하고 농담도 해 보았다. 그만큼 간절했다. 하기 싫다고~~

3월이 되어 방과후학교 안내장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수강생 모집이며 추첨 등등 처음 하는 업무라 전전긍긍하며 퇴근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책상 위에 눈앞에 들어온 우편물이 있었다.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방과후학교 담당자" 앞이라는 우편물을 보고 바로 열어 보았다. 며칠 전부터 언제부터 있던 우편물인지 알 수 없지만……. 책상 위에 있었던 것이다.

파란색 안내장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자신감 있게 '문제없어' 하는 듯 웃고 있었고 "120만의 스마트 학사 관리 플랫폼 코디마스터"라는 안내장이 들어 있었다.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중학교에서도 시간표 운영을 하기 위해 사용하던 외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그 우편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마치 부적처럼...

교감선생님께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았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날 보셨기에 그리고 사모님도 예전에 방과후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밤늦게까지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일하고 수강료도 안 맞아서 고생했던 거를 아신 다며 교장선생님께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너무도 감사하게 코디마스터라는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다음날 바로 코디마스터에 전화를 해서 연수를 듣고 수강료가 강사료와 수용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들었다. 올해 3월부터 나와 함께한 코디마스터는 인근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문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신 있게 코디마스터와 함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안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한다는 박달초등학교가 더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자랑스러운 것일까? 수강생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고 수강료와 강사료, 자유수강권까지 관리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다.

처음엔 프로그램을 잘 몰라 사용 방법을 묻는 전화를 많이 했었다. 급하면 했었다.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잘 못 알아 들어서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날 때도 잘 도와주신 코디마스터 직원분들께 12월이 되어서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갑자기 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물어도 성실히 답해 주실 코디마스터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선작〉

하남 위례숲초등학교
최혜인 선생님

생초보 코디도 3일이면 완벽 마스터! 모를 땐 언제든지 콜센터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글은 코디마스터 사용 수기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은 홍보 문구처럼 적었냐구요? 저는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2021년 8월 말, 저는 방과후 코디라는 생소한 직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등하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생각에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도전한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근 시작과 동시에 업무 교육 없이 바로, 방과후 업무 지시가 쏟아진 것이지요. 제가 맡은 학교는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신설 학교였고, 무시무시한 전입학생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교 학생들의 명부 또한 계~속 바뀌고 있었지요. 게다가 방과후 위탁을 맡은 업체의 본사는 고양시 행신동에, 제가 근무할 학교는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니, 본사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에도 물리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첫 임무는 "강좌 정보 등록" 후 "수강 신청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였습니다.

저는 수용비가 뭔지, 강좌 영역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입사원들처럼, 선배들에게 묻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때 구세주처럼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코디마스터의 담당자분입니다.

첫 업무 시작부터, 중간 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헷갈려하면,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3일 동안 매일 수십 번도 넘게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친절한 응대는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업무에 조금 익숙해진 후에도 코디마스터는 여전히 감동이었습니다. 첫 세팅만 정확하게 해 놓

으면, 직관적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부 출력하기, 수강 취소 후 수강료 확인하기, 자유 수강권자 관리하기 등 저는 코디마스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도 검색 창에 학부모님의 전화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적 조사라며, 복수 수강생은 몇 명인지, 단수 수강생은 몇 명인지 당장! 알려달라는 방과후 부장님의 전화에도, 코디마스터 덕분에 재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규 수강생 모집 시의 추첨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학생 수가 많고, 방과후 개설 과목은 적다보니, 학부모님들이 추첨에 유독 민감한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코디마스터의 "추첨" 기능을 활용하고, 해당 화면을 녹화하여 학부모님들께 공개한 이후에는 어떠한 민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 뽑기"를 고수해 오던 돌봄 교실에서 조차, 코디마스터로 돌봄 학생도 추첨해 달라며 요청해 오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숫자에 무디고, 일처리가 다소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디마스터 덕분에,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랑받는 코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 짜인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뒷받침해주시 는친절한 직원 분들의 응대 덕분에 저는 경력단절여성에서 방과후 코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코디마스터와 로데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코디마스터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 청도초등학교
반추자 선생님

코디마스터는 나의 업무 친구

저는 2년 전 교육청 발명교육센터에서 근무만 10년 하다 초등학교과학실에 9월에 발령을 받아 교무행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실 업무와 발명교실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왔더니 저에게 또 하나 넘어야 하는 산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곳은 군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 입니다. 제가 평소 업무가 컴퓨터를 잘 하지 않는 업무이기에 컴퓨터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하는 저에게 코디미스터 프로그램 인수인계를 하시는 선생님 말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이 학교에서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다고 하시며 두껍게 복사 해 놓은 코디미스터 프로그램 설명서를 주셨다. 그 설명서를 받아서 보니 너무 복잡하기만 했다 20대 아가씨선생님이 처음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50대 중반인 저에게 주신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신학기에 방과후학교 부장선생님은 육아휴직을 들어가시고 나보다도 더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모르신 방과후학교 부장선생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우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나 혼자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 맨땅에 헤딩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엑셀 작업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차라리 수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딸에게 SOS 밤늦게 까지 첫 작업을 마치고 또 프로그램 할 때 마다 070(코디마스터)을 눌러서 물어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 가게 된 코디미스터 프로그램 1년 지나서 다시 코디미스터를 사용 하겠냐고 물어 보시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디미스터 프로그램이 없으면 방과후학교 업무가 너무나 힘들다고 다시 한 번 어필 하고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는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이제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조금은 익숙한 나에게 그동안 고생 했다는 말을 전하며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하루입니다. 아직도 부족 하지만 이곳에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업무 친구 코디마스터와 함께~~~

구미 옥계동부초등학교
오태현 선생님

코디마스터를 사용한 소감은 매우 만족합니다!

코디마스터를 접하기 전, 엑셀 파일에 함수를 적용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쿨뱅킹 확인을 하였습니다. 늘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경 쓰는 부분도 많았지만 코디마스터를 처음 접한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방과 후 관련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게 되었고 그중 최고는 스쿨뱅킹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육비 담당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 있는 저 또한 코디마스터에 100% 만족도에 동의하며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한 페이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코디마스터로 신청하시는 게 너무 쉽고 강사님들도 만족도가 높아 여기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큰일 날 거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를 이끌어 나가니 한결 편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코디마스터 사용을 권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불편함 없이 이끌어 주시니 코디마스터 관계자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서울 언남초등학교

김윤정 선생님

코디마스터 기능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온라인 접수, 온라인 만족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좌 접수자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추첨과 출석부를 만들어주고,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집계까지 내주니 담당자인 코디가 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학생 수가 3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학교로 옮겨오면서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새 프로그램이 어렵게 만 느껴졌는데 프로그램 사용 전에 전화로 프로그램 설치법과 사용법을 일일이 설명해주셨고,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울 때마다 자주 전화를 드려도 응대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수기를 쓰다가 학부모님 전화를 받았는데 학부모님께서 올해 어떤 강좌를 몇 번 들었는지 알고싶다고 하셨고 코디마스터의 수강 이력을 조회하니 그 학생이 올해 어떤 기에 어떤 강좌를 들었는지, 어떤 강좌를 신청했다 취소했는지 알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리기 너무 편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될 코디마스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마석초등학교
정미희 선생님

나의 119 코디마스터

“코디마스터를 사용합니다.”
면접관님 말씀이다 코디마스터? 코디마스터가 뭐지?
코디라는 일도 처음이라 어리둥절한데 프로그램마저도 낯설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코디마스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첫 출근 후 프로그램을 열고 이것저것 만져보았다 괜찮다 모르면 전화하면 되지나 자신을 다독이며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온 정신을 모니터에 가둔 채 하나라도 틀릴까봐 조심하면서 한참을 들여다보니 모르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코디마스터에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
1분기 수강신청이 시작되었다.
한 학부모님이 전화하셔서 수강신청을 할 줄 모르니 대신 해달라고 하셨다.
“저는 할 수 없으니 어머님께서 직접 하셔야해요” 학부모님께서 화를 내셨다
지금은 학생들의 링크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를 내셨던 학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착확정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확정 문자를 보냈다 한 강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 명단 링크 보내달라고. 명단 링크? 그게 뭔데요? 아이들에게 수강신청 링크를 보낼 때 강사님들에게도 링크를 보내야 한단다.
그래야지 강사님들이 신청학생들을 알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다고.. 휴!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하고 스러지고 은행나무 잎이 인도를 점령하고 하얀 별모양의 눈이 땅위를 뛰어다녔다 오늘은 바람에 눈들이 춤을 춘다.
내가 몰라서 해매였던 부분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막막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수많은 전화 통화에도 짜증 부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친절하게 답해주셨던 코디마스터 직원 분들이 계셨기에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년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마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 강빛초등학교
염혜정 선생님

어쩌다 방과후 코디가 되었다.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공석이 될 방과후 코디 자리를 꿰찼다.
여러 방과후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그럭저럭 잘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분기가 시작되고 끝나고 순간 멘붕에 들이 닥쳤다.
혼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강신청을 받을 때부터 뭔가 무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느낌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코디마스터에 가서 이것저것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해 본다. 코디마스터. 참 잘 되어있다.
우선수강자들 불러오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URL이 가니 여기서 내가 별로 할 건 없다.
그냥 공문을 정확하게 잘 작성하는 정도. 수강신청기간이 지나면 강사들에게 수강, 취소 권한이 가는것도 참 편하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강사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코디마스터의 기능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난 바로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친절하시고 원하는 대답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능숙하지 못한데 코디마스터는 불러오기 기능부터 시작해서 한 화면에 기능이 심플하며 다루기도 편하게 되어있다. 문득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500명이 넘는 학생과 중복수강생을 어찌 관리 했을까…….이전에는 어떻게 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르르릉... 방과후지원실로 한 학부모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 기수의 우리 아이 수강 신청 과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다시 코디마스터를 연다.

서울 정수초등학교
오경자 선생님

2021년 4분기 시작과 함께 방과후 코디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보 코디 업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수강신청기간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였지요. 방과후업무시간은 1일 3시간이었지만 수강신청기간에는 그 시간 안에 마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저희학교는 그나마 학생 수가 적어서 할 만하겠다 생각했지만 수강 신청기간에 신청, 취소건 이 많아서 출석부 관리가 혼란스러웠답니다. 구글 폼으로 수강신청 받으면 출석부 정리해서 강사들께전달하고 그 중간 중간 취소, 추가신청자 모집 등 정신이 없었고 실수도 나오곤 했답니다. 이런 힘듦을 알아서 인지 저희 부장님의 선택으로 2022학년도부터 코디마스터를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코디마스터는 신세계였답니다. 수강신청기간 미리 입력만 해 놓으면 코디마스터 안에서 다 볼 수 있으니 간편하더군요. 그 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 발송이 간편하고 결과수집도 간편해서 다양하게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왜 진작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웃으며 얘기하곤 한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수강신청을 하니 수강일 때마다 사용방법이 좀 헷갈려서 버벅 대기도 하지만 그럴때마다 코디마스터 관리자에게 전화하면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그 또한 감사했답니다. 제가 자주 문의전화해서 민망할 정도였지만 항상 친절한 응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코디마스터로 즐겁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초등학교
이희정 선생님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에서의 코디마스터 사용 경험 및 소감

저는 올해 초 처음 방과후학교에서 코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도 지나 4월말에 시작한 일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디 일에는 정말 자료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모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디마스터가 없는 학교에 와서 제가 처음 코디마스터를 신청하고 전교생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1기 기존학생들을 따로 모두 등록해서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1기 만족도조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저는 1기 수강생 학부모과 학생을 기준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이없는 자료를 만들 고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문의할 생각도 못하고 진행을 했던 탓 이였습니다.
코디마스터 직원분과 상담 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해서 2기엔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강사별 만족도 조사로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코디마스터 직원 분들입니다.
제 전화 받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셨습니다. 언제든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주시고 교육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무한반복하며 문의를 드려도 싫은 내색 없이 어느 분이든 늘 친절하셨습니다.
2기 방과후학교 모집을 코디마스터로 하면서 새롭게 안 기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선 출석부를 강사 분들께 전송이 가능하고 강사 분들이 출석부로 설정된 기간 동안 수강생 추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기수 시작 시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강 접수 현황도 강사 분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교재나, 재료 신청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강좌별로 수강료가 정리되니 징수파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방과후학교 코디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분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수 없이 적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성 왕배초등학교
전선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소재지 왕배초등학교 방과후코디로 근무 중인 전선주입니다.
2021학년도 4분기부터 로데브 코디마스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생소했지만 방과후학교 업무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학사관리 플랫폼으로 수강 신청 안내 문자 발송부터 출석부 관리, 회계 관리, 설문조사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처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의 반복되는 업무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강료 및 강사료 등 금전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함도 필요해 적잖은 부담이 되는 업무지만, 수강료, 강사료, 취소·환급 등 회계업무 처리에 편리하며, 학생별로 자유수강권 대상자 등 수납 방식을 따로 설정하고, 각종 정산 결과를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가 있어 이점 또한 편리합니다.
그리고 출결 알림, 만족도 조사, 실시간 통계, 선착순 모집, 대기자 수 설정, 랜덤 추첨 등 여러 옵션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출석부 관리가 편리하며 일일이 수기 출석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출결사항을 바로바로 조사할 수 있어 좋았고, 회계 관리에서 수강료(강좌별), 수강료(학생별) 관리를 따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도 구분되어 있어 좋습니다.
부가 기능에서 전교생이 아닌 방과후학교 수강생들에게만 설문조사 및 가정통신문을 문자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은 최고입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방과후학교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안 점도 더러 있지만 그런 부분은 코디마스터 담당자님께 말씀드리면 즉각 해결해주시거나 추후 참고 보완도 해주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더 편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구로초등학교

황선혜 선생님

1. 코디마스터 사용 경험담, 소감 에피소드

2022년 3월 처음 방과 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저로서는 기본 엑셀 및 hwp 자료만을 찾아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수십 가지 업무와 자료들을 보기란 쉽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수강료 및 강사료 등 돈과 관련된 업무로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숙의로작성되었던 방과 후 업무를 코디마스터란 방과후 시스템을 타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정보를 듣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학교 예산을 얻어 코디마스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친절한 교육으로 사용방법을 쉽게 습득하여 많은 학생관리 및 수강료, 강사료 등을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 같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2. 코디마스터 장점 및 기대효과

우선 제일 편한 건 스마트한 업무로 시간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으로 일일이 숙의작업 없이 자동화 된 시스템으로 간편하고 정확한 업무 관리에 최적화라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정보 입력 하나만으로 출석관리, 수강신청, 회계 관리, SMS발송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수강 업무가 별로도 있어 개인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이 외에도 강사관리, 통계 처리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코디마스터 직원분들의 친절한 응대로 일하면서 필요한 시스템을 수정 보완해주심에 더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한 발전 가능한 코디마스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며 응원합니다. ^^

서울 어울초등학교
오은주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올 스톱되고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속되어 방과후 코디업무를 해 오셨던 선생님들은 그만두시거나 그나마 학교에서 배려해주시면 업무변경을 통해 근 2년간 다른 업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with 코로나로 공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어렵게 학교도 정상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방과후학교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저 또한 새로운 학교로 이직을 하여 방과후 코디네이터 업무를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개교가 얼마 되지 않은 학교, 또한 혁신학교로 운영 되어지는 현재 학교는 정확하고 빠르고 혁신적인 무엇보다 편리한 시스템인 "코디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과 함께 코디마스터 사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방과후 시작 전 코디마스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교육 참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 학기 시작 후 방과후학교 운영을 일주일 앞두고 전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하게 되었고 새 학교에 이직하여 준비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결근이라니...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코디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도 코디마스터 선생님들께 하나하나 코칭 받으며 방과후부장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대행해 주시고 저는 부득이하게 집에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여 코디마스터 사용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재택근무, 온라인교육이 저에겐 오히려 재택근무로 인정해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 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에겐 고마운 존재이지요~
처음 접한 코디마스터로 작업을 하던 중 이런 저런 궁금한 사항이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학교의 방식에 맞도록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제시해 주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의 전화를 해도 불편한 기색 없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코디마스터 개발사 로데브 모든 선생님들께 코디마스터 초보인 저에겐 정말 동아줄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코디마스터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한 학기를 무사히 보내고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올해의 끝자락을 보내며 코디마스터 수기 공모에 도전해봅니다. 크나큰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심적으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업무경감을 줄여주는

코디마스터!!

현장 업무를 하는 코디 선생님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프로그램이지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부하고 다시 신청서 제출받아 신청내용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신청내역 작성하고 방과후시작 후 1~2주 사이에는 무수히도 많은 신청내용들이 추가되고 취소되는 과정이 많은데 그 모든 원시적인 방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 된다는 그 하나만 보고도 정말 신세계가 아닐수 없습니다. 단 데모내용이 있긴 하지만 코디네이터도 직접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해볼 수 없으므로 강사님들을 통해, 학부모님들 통해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방과후 시작 전 수강확정자가 정해지기 전 신청 및 취소 내용이 코디마스터프로그램 기록에 남겨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여러 명인 학부모님들 경우엔 같은 번호로 링크주소가 발송되는데 링크주소 발송 시 학생 이름도 같이 발송 되는 건 어떨까요? 조심히 두드려봅니다.

서울 정목초등학교
이미자 선생님

내 짝지 코디마스터

17년간 외국에서 생활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온 나는 코디마스터가 없었다면 아마 방과후코디 생활을 하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처음 가져 보는 직업인데다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처음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영등포여성인력센터에서 교육받은 방과후코디 교육 1달을 이수 후 바로 취업하게 되어 지금의 정목초등학교에서 방과후코디로서 보람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매 기수 수강생 접수부터 관리, 만족도 조사 등 모든 코디의 일들이 매우 쉽게 수행하도록 코디마스터는 되어 있는 것 같아 나처럼 집에만 있던 사람도 누구나 일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3월부터 근무하면서 코디마스터와 함께 하다 보니, 혼자 일하는 코디 특성상 짝꿍 같은 느낌으로 매일 일하는 내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1,2,3기 모두 지나 4기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코디마스터의 도움이라 생각하며 처음 보다 더 능숙하게 일하는 나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코디마스터와 함께 일하는 지금은 누군가 방과후코디로 일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코디마스터 사용하는 학교라면 가서 일해도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업무를 같이 하는 코디마스터, 몇 백 명이 되는 학생들을 능숙하게, 정확하게 ,쉽게 관리하게 해주니 정말 좋아요, 최고예요~

서울 천동초등학교
김혜성 선생님

코디마스터는 방과후 계의 에르메스

처음에 다른 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것,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또 다른 귀찮은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학교는 늘 변화를 두려워하며,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기 마련.
그런 학교에 맞추어져 늘 하던 대로, 번거로워도 기존 방식을 고수해왔던 내 태도에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바로 '코디마스터'다.

역시.
남들과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가 느껴진다.
내가 사용해보고 나서는,, 이거 만드신 분은 천재다 라는 생각만 했다.
처음에 기초정보만 잘 저장해두면 1년 내내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고 손쉬운 추첨기능 그리고 늘 별도로 보내야 했던 만족도 설문지도 한 번의 클릭에 보낼 수 있는 것은 혁명!

첫 수강확정 후 추가 취소의 경우 제가 30명의 선생님들과 개강 전 낮이고 밤이고 실시간으로 처리했었는데, 선생님들 스스로 명단 관리를 하니 선생님들과 나의 부담도 줄고, 그에 따라 실수도 줄고,,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시스템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다만 중도 취소나 추가는 분기 초 내려 받은 별도의 파일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해서 코디마스터를 분기 내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만으로도 너무나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도와주는 코디마스터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과후 관리자 입장에서 해결해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는다.
코디마스터가 있어 참 좋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홍제초등학교
조덕희 선생님

코디마스터 사용 경험담

짧은 저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19학년도 처음 저희 학교가 코디마스터를 사용한다고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떨림과 복잡한 부담감을잊을 수가 없네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이른 아침부터 줄서서 신청 받는 오프라인 신청이었거든요ㅠㅠ)

당시 개학 전 코디마스터에서 팀장님이 직접 학교 방문해서 늦은 시간까지 시연 및 입력 방법 등 상세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방과후 운영 중에도 문의 시에 바로 응대가 잘되어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피드백이 잘 되었어요.
홍보대사처럼 어디서 '코디마스터 문의'하면 정말 장점이 많다고 실무자가 쓰기 업무효율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단, 처음 코디마스터를 제가 접했을 때는 교사들이 오히려 주변학교에서 사용후기가 좋다고 적극 추천을 하였는데, 최근 몇 년 들리는 얘기는 업체들이 사용료가 비싸서 사용하기 꺼려한다고 방과후부장님들한테 얘기한데요.
현재 저희 위탁업체(아이샘교육)는 대놓고 코디마스터 사용하는 학교 싫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구요 당황했어요ㅠㅠ (그러고는 허접한 '딩동유' 프로그램 갖고 들어와서 애먹고 해보려다가 결국은 제가 간청해서(?) 코미마스터로 전환 했지요~)
올해도 방과후부장님께 위탁공고 전 물어보셔서 코디마스터 제가 정말 적극 추천했어요ㅠㅠ
결론은 위탁공고문에서 코디마스터 문구를 빼시네요. 온라인접수 문구만 넣구요.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학교, 업체 홍보 좀 해주세요. 코디마스터 장점, 그리고 사용료 좀 낮춰주세요.(또는 재개약학교는 멤버십이런거 만들어서 소액이라도 할인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년에도 홍제초 코디마스터 함께하는 방과후학교이기 바래요~ 진심^^
감사합니다.

서울 홍인초등학교
박미혜 선생님

■ 코디마스터 사용 소감

2021 학년도 방과후 학교 코디로 근무하면서는 코디마스터를 사용하지 않아 엑셀파일, 한글 파일, 개인 연락처를 통해 업무를 하였었는데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면서 강사 정보관리, 수강 신청, 수강생 정보관리, 시간표 관리, 수강 신청 및 변경, 출결 체크와 알림 서비스 등을 프로그램 내에서 일괄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정리하기가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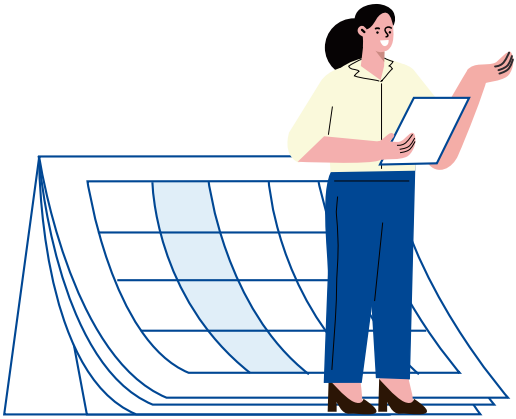
지금은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코디마스터를 켜는 겁니다. 매일 업무의 시작과 끝을 코디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기 초에는 코디마스터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잘 사용 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코디마스터 없이 일하면 여러모로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코디마스터가 든든한 업무 파트너가 되어 업무를 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코디마스터의 장점

1.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던 내용들을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수강신청을 학부모님께서 코디마스터를 통해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전에 강사 연락처로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명단을 받던 방법보다 체계적이고 누락될 가능성이 낮아서 좋았습니다.
3. 코디마스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학부모님들께 안내 사항을 보내야 할 때 개인 연락처를 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코디마스터를 통해 방과후 지원실 번호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4. 많은 내용을 장문으로 보내거나 첨부파일을 보내는데 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디마스터를 통해 다수의 수신자에게 원하는 내용을 일괄로 편리하게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5. 코디마스터를 통해 학부모님들께 수업시작과 수업종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님들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6. 코디마스터에서 수강취소를 바로 할 수 있어서 취소 학생을 누락 없이 관리하기에 편리하였습니다.

7. 코디마스터에서 수강 추가, 반 변경, 수강취소 등에 대해 정보를 수정하면 출석부에 내용이 반영되어 출석부를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8. 수강생 명단을 정리하고 확인할 때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내에서 강좌별로도 볼 수 있고 학생별로도 수강하는 프로그램들을 확인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면서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을 때 문의 연락드리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세종 도담초등학교
장선경 선생님

코디마스터란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입사하면서 사용을 처음 하게 되었다.
방과후학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생각에 신기하게 봤던 것 같다. 일부 학교에 있을 때는 나이스, 학교종이, 수기관리 등으로 신청, 취소를 받고, 수기로 계산을 하면서 엑셀만 사용하였을 때의 불편함과 아쉬움을 한방에 날려주던 프로그램을 만났다.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꼭 필요한 신청, 취소 관리는 물론이고, 학생 개개인의 전체 수강이력 등 학부모님들의 민원과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엑셀을 이용한 수강료 산정 및 자유수강권 관리 또한 너무 편리하게 이용되었다. 학교별 기준점이 달라서 엑셀로 다운받아 개별 관리를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함이 더 컸다.
부가 기능으로 설문조사는 만족도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1년에 2~3번의 설문조사는 학교 내에 꼭 필요한 지표가 된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만족스럽게 하였느냐는 다음해의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다양한 기준의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하며, 학부모님들 또한 편리하게 종이로 일일이 작성해서 내던 때와는 다르게 문자메시지 하나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SMS발송 기능 또한 사용하면서 SMS발송가능 문자수가 너무 적어서 내용을 축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장문이 발송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로데브에서 귀신같이 알고 LMS라는 기능을 추가해주어 장문을 링크를 통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편리하였다. 다만 SMS발송 사용료가 다소 높은 편인지라 대단위 학교에서 발송하기를 하였을 때 큰 부담감은 있다.
코디마스터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 시 콜센터가 상시반영에 노력한다는 점이다.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 텐데, 이 시스템이 왜 이러지 하는 점들을 바로 콜센터를 통해 연결을 하면 프로그램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과 제안을 반영시키시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코디마스터란 프로그램으로 실무관리자와 학부모, 학교가 민원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종 여울초등학교
이미옥 선생님

방과후 업무를 9월 1일 날짜로 처음 맡았습니다.
코디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업무를 시작했던 담당자로서 그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모합니다.
전임자는 코디마스터를 수강 모집 시에만 사용을 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용을 안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면서 내가 맡은 날부터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진행을 해보니 결론적으론 코디마스터는 학생들 모집하는 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엔 나에게 일이 두 배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다른 학교 담당자들과도 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1. 코디마스터는 분기별 모집이 기준이라 저희처럼 월별 징수하는 학교는 번거롭게 해야 하는 건 감수해야 한다는 게 코디마스터 담당자의 답변
   - 분기든 월별징수든 학교 일정에 맞춰 선택사항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
2. 모든 기준이 분기로 맞춰졌다 하지만 수기로 수정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강좌정보 관리에 들어가 재료비 및 교재비만 수정하면 되는데 일수강료까지 자동으로 분기별로 계산되어 바뀌다 보니 강좌 금액을 다 수정해야 해서 월수강 일수강 교재, 교구란을 왜 별도로 수정하게 두었는데 모르겠음
3. 강좌별 수강료가 합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강좌별 합계를 보려면 강좌별 보고서를 눌러서 그중에서 그 과목이 나올 때까지 다음 페이지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계 보는 게 가능 수강료 합계 기준도 모든 징수하는 금액이 보여야 하는데 취소한 학생들은 취소포함 전체를 눌 러야 찾아볼 수 있고, 취소 대상자가 수업개시 전 취소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취소 리스트에 들어 가서 해당 학생을 지워야만 맞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어렵다.
4. 강사들이 출석체크가 되었는지 본인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5.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으면 자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들을 담하시는 직원 분들의 친절한 안내로 조금은 위로가 되긴 하지만 꼭 수정 및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서호초등학교
심성미 선생님

처음 코디마스터를 접하면서

나는 학교를 이동하면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방과후학교 업무라 하면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인데, 업무를 받는 순간 마음속에 큰 바윗덩어리와 하얀 도화지가 펼쳐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없었던 상태에 인수인계는 출력물이 다였다. 현 업무담당자도 방과후업무가 처음이고 안 해봐서 출력물에 있는 내용만 알려주셨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먼저생각났던 건 코디마스터였다.

언젠가 나도 업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코디마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인근 학교 담당자들에게 "접수부터 회계, 자유수강권 정산" 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학교에 설명 드리고 다행히 계약을 하게 되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게 되었다.

계약 전 코디마스터 화면을 들여다보니 알록달록 색깔이 참 부담 없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이것저것 눌러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ㅠㅠ

난 인터넷으로 코디마스터에 대해 검색하다 "온라인 교육신청" 문구를 보게 되었다. 기쁜 맘으로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였고 교육일 에는 줌으로 직원분이 친절히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흐름을 알게 되었다. 그곳엔 나와 같은 동지들이 많이 있어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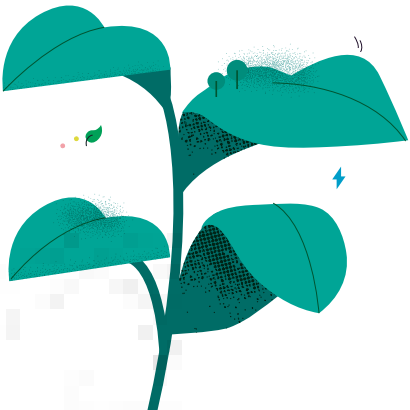
방과후학교 수업이 시작 되었다.
접수부터 회계 마감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접해보니 너무 정신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코디마스터 회사에 수시로 전화를 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왜 이렇게 나오죠? ”
“ 맞는 거죠? ” “ 많이 도와주세요 ㅠㅠ ”
....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금 나는 4분기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 업무를 능숙하게 잘 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다음해에는 좀 더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나 혼자가 아닌 코디마스터와 함께이기에 할 수 있다.!^^♡

안성 공도초등학교
오은주 선생님

2014년 1학기 말쯤 방과후학교 업무를 1년 반 정도 하던 중 방과후학교 관리 플랫폼 [코디마스터] 홍보물을 보게 되었다. 당시 우리학교는 35학급에 방과후 부서25개를 부장1명, 주무관 1명이 수강생 접수, 수강료 징수. 환불, 부서별 출석부 작성,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관리, 강사료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방과후코디의 채용, 인력관리, 인건비, 업무연계 등을 보았을 때 원활하지 않아 방과후학교 코디도 없는 상태였다.
방과후부장님과 상의 후 로데브(주)에 연락하여 학교에서 [코디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반적인 방과후학교 업무가 프로그램 안에서 해결되는 장점을 적극 반영하여 2014년 3분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2023년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처음 [코디마스터]로 접수 할 때는 종이신청서와 병행하여 접수를 받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코디마스터]로만 접수를 받고, 이 외에도 출석부, 출석체크, 만족도. 수요조사 등 모든 업무가 [코디마스터]로 원활하게 처리되어 [코디마스터]에 대한 강사만족도도 높고, 학부모 민원도 없으면, 각 학급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수강현황URL"로 수강취소, 추가 신청 등이 수시로 반영되어 볼 수 있어 학급담임선생님도 너무 좋아 하신다.
업무담당자인 나 또한 매우 만족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느냐고 묻는다면 "Yes"다.
현재 우리 학교는 안성시에서 학급 수(52학급)와 학생(1,515명)수가 가장 많고, 방과후학교 부서는 15개 부서를 운영 중이다.
문제없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도와주는 [코디마스터]는 나의 좋은 업무파트너이다.



안성 만정초등학교
조금속 선생님

나의 슈퍼맨, 코디마스터

작년 여름이었다. 방과후 코디를 해보지 않겠냐는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방과후 업무? 아이를 방과후 수업에 참여시켜보기는 했으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나였다. 어렵지 않다는 지인의 말에 기회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경력이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방과후 업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결국 출근 날은 왔다. 다행히도 나는 너무 친절한 실장님을 만났다.

실장님께서 내게 처음 알려준 것은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이었다. 모든 방과후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시스템 되어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방과후 코디에게 이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는가. 방과후 수업 신청과 취소, 출석관리, 회계 관리, 자유수강관리, 설문조사까지.. 방과후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들이 다 시스템 되어 있었다. 볼수록 신기했고 편리했다. 처음에 세팅하는 것도 지난번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고, 수강 신청도 클릭만 하면 완료되니 좋았다. 출석부도 출결석 문자발송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쉽고 편리했다. 학생 개인별 수강금액을 모아 볼 수 있는 기능도 좋았고, 설문조사의 경우 그 결과와 통계가 다 나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가장 좋은 점은 하다가 모르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바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든 바로 전화연결이 되었고, 모르는 것을 척척 해결해주는 해결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내게는 슈퍼맨 같은 코디마스터였다.

올해부터는 사전교육도 있었다. 그래서 2번 정도 교육받으며 꼼꼼히 필기하고 열심히 들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 한층 더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다. 방과후 업무에 필수적인 것만을 모아 시스템화 되어 있고, 거기에 나날이 발전을 더해가는 것 같다. 끊임없이 보완할 점을 찾는 자세가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코디마스터는 내게 감사한 슈퍼맨이다.

용인 새빛초등학교
유정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사 3개월 차 코디네이터입니다.
대학에서 학사행정 업무만 10년 하다 퇴직 후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경단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방과후 코디네이터 업무에 대한 취업알선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입사 후에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에 다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공개수업 및 작품전시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바로 다름 분기에 대한 수강신청 등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면접 시에도 초등학교 방과후 행정 일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있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코디마스터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제가 느낀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적으려고 합니다.

우선 접근성이 너무 편리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는 필수이지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침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강사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해당 강사님의 방과후수업이 있는 날이었지요. 학생들은 이미 등교 한 상태였고, 이에 바로 방과후담당 부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들 명단을 말씀하셔서 바로 집의 노트북으로 코디마스터의 출석부 명단을 부장님께 전송해 해당 학생들의 담임선생님께 휴강 안내를 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디마스터의 부가기능인 SMS발송관리를 통해서도 학부모님들께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걸리는데 소요된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검색 기능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수강신청 및 취소, 각종 조회화면에서 검색창을 통해 해당 학생을 손쉽게 검색해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각종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매뉴얼이 순서대로 되어있어 가장 걱정이 되었던 수강신청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모바일설정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과정에 넘어가지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막혀있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석부 일괄출력이라던지 엑셀자료 일괄등록도 손쉽게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점 또한 업무시간을 줄이는데 효율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과후 실무담당자로서 학생 요일별 시간표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각 학년 담임선생님들께 매 분기 초 각 반 학생들의 수강 자료를 전송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요일별로 수강리스트가 분리가 되지 않아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혹 이 기회를 통해 시스템에 반영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코디 업무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이 공모전에 응모한 이유도 유선으로 문의하기 죄송스러워 이 기회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이유입니다^^;;

코디마스터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하고 쉽게 유선으로 문의드릴 경우에도 너무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 교육과정이 각 학교마다 더 활성화가 되어 저처럼 경단녀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코디마스터가 함께 지원하고 지지해준다면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년 2023년에도 더 발전하는 코디마스터 프로그램과 함께 저 또한 코디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가정초등학교
추선순 선생님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올해 3월 처음 시작했다. 엑셀로 만들어야하는 업무들을 카톡으로 넘어온 문서파일로 배웠다. 수강료(강좌별)에서 엑셀로 내보내기한 후 작업하는 방법이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글로 읽고 엑셀로 작업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여러 번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또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교육비와 교재비, 재료비를 산출해야하는데 엑셀을 이용하여 엑셀 수식 피벗테이블을 이용하여 각 학생별 교육비, 교재비, 재료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니 중간에 이게 맞는 건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세 번 돌려 보다보니 시간도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적응기간이 필요한 법이지만 제가 이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작업을 마친 후 중간에 수강 전 취소를 하는 학생이 생기거나, 재료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련의 작업들을 다시 반복해야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그러다가 코디마스터에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코디마스터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가 학생별로 합산되어 엑셀로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수강료(학생별)로 가서 엑셀로 내려 받기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행해보니 일일이 다운받아 엑셀을 정리하고 피벗테이블을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수강료와 재료비, 교재비가 정산되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싶어 기존에 수작업으로 한 번해보고 코디마스터 〈 수강료(학생별)로 다운받아 일일이 비교해 보았다. 금액은 정확히 일치하였다. 첫 분기 때는 인출자 파일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코디마스터의 기능을 알게 된 후 나의 일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직도 환불작업이나, 예약취소 등 작업 할 때마다 이게 맞나? 할 때가 있지만 코디마스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 자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 남부초등학교
최영신 선생님

사용수기를 쓰려고 하니 코로나로 격리 중이던 3월 초반에 코디마스터 줌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 실행해 보는 프로그램이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했지만 실무에서의 쓰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작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만 잘 구성해 놓으면 나머지 진행 기간에는 공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방과후학교 코디 업무가 처음인 저에게 코디마스터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일로 출근을 못했을 때 학교 실무사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처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택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요청받은 사항과 필요한 업무를 막힘없이 처리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모르는 메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하단 부분 콜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친절히 응대해 주셔서 사용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엑셀로 전환하여 보여주는 메뉴도 쓰임이 좋고 기존의 엑셀 파일을 프로그램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검색기능을 조금 강화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검색하면 수강생에 대한 수강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코디마스터가 방과후학교 업무를 진행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문학초등학교
임지현 선생님

코디마스터를 사용해서 방과후 업무를 새로 맡게 된 문학초 방과후부장입니다. 22학년도 9월 복직인데 부장님의 발령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후 처음 방과후 부장 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문학초등학교는 기존에 코디마스터를 이용해서 매 기수별 학생을 모집하고, 수강신청을 받고, 학기별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4기 수강신청을 제가 처음 모집하게 되었는데, 혹시 틀릴까봐 두려워서 3기까지 부장님이 하셨던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코디마스터 통합관리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출력해서 집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매뉴얼대로 따라하니 어려움 없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콜센터에 연락해서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고객센터의 경우 연결이 어렵고 복잡해서 통화하기가 어려웠다면, 코디마스터는 통화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켜고 이야기 해주셔서 원격 지원 상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강신청 후 방과후학교 강사님들께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이 직접 교재비 수정도 바로 가능해서 방과후 업무에 대한 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실시한 22학년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도 코디마스터를 이용해 실시했습니다.
학부모님, 학생에게 각각 문자로 설문조사를 전송해서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기존에 가정통신문을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통계 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코디마스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편리하게 결과를 그래프로 볼 수 있어서 업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23학년도에도 방과후학교 관리 프로그램으로 코디마스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2학년도에 두려움으로 맡게 된 방과후 업무를 23학년도에는 코디마스터의 도움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백운초등학교
김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백운초 코디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전교생 480명 정도이고, 방과 후 모집인원은 평균 470명 정도입니다.
모집이 굉장히 잘되는 학교입니다.

2021년엔 수기 모집으로 정말 바쁜 코디 생활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부장님께서 바뀌면서 코디마스터 사용을 하시겠다하여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코디 생활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방과후부장님을 만나거나 회사실장님을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코디마스터 최고!!!!!
거기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전화를 드리면 세상 천사님들만 계신 것 같아요!!!
코디마스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친절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송명초등학교
지미아 선생님

코디마스터 사용 경험을 쓰려고 하니 코디가 되어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처음 마주했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낯설고 서투른 모습으로 코디마스터를 대했던....
무슨 일이든 처음은 다 어렵고 서툴 듯이 저 역시 동료 코디님의 짧은 설명만 듣고 학교에 와서 컴퓨터를 열었는데 설치하는 법도 몰라 당황했던 나. 이제는 추억처럼 지나간 시간들이네요~.
첫 분기 모바일 수강 신청 문자를 보내던 날. 학부모님께 보내는 단체 문자라 틀리면 안 된다는 심한 압박감에 엄청 손 떨었던 순간. 수강 확정에서 선착 확정을 눌러야 하는데 추첨을 눌러서 너무 놀라 떨리는 맘으로 로데브 콜 센터로 전화 걸었던 일들. 다행히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 마음도 진정되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고 떨렸던지. 그리고 코디들의 영원한 지원군인 콜 센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보니 코디마스터 안에 수강 신청 도우미가 있고 메뉴마다 사용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 일을 계기로 B.Y.J 대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 개인 핸드폰으로 엄청 전화 많이 했는데 심지어 쉬시는 날에도 전화하곤 했는데 감사하게도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처리해주시고 알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중 회계 관리에서 수강료 산출 시 강좌별로 출력도 가능하고, 개인별로 합산해서 출력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출석부 기능도 너무 잘되어 있고 모바일로 강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안 되었으면 하는 건 취소자 환불은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서 학교 상황에 따라 처리 가능한데 학교마다 규정에 따라 취소는 아니지만 금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처리 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면 전체 금액 맞춰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름으로 검색해서 학생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이 수강 취소나 추가 등록자 명단을 주실 때 정확하게 주지 않을 때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전체 명단에서 학생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전화번호나 이름 등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면 일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끝으로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쉽게 배우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신정초등학교
김혜성 선생님

신세계를 경험하다.

5월 초, 근무학교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빴다. 새로운 학교 업무를 인수인계 없이 처리해야 했고 특히 이때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코디마스터가 문제였다. 방과후학교 코디 근무 경력이 6~7년이 되지만 아무래도 처음 사용해본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선 코디마스터 원격수업을 신청하여 기본적인 수업을 들었다. 수업을 들은 후 헬프데스크에 있는 코디마스터 사용설명서를 출력해 차례대로 화면과 비교하면서 읽었다.

2분기 접수 전 전출, 전입생에 대한 정보 수정, 프로그램 금액 변경, 교실 변경 등 기본 사항을 수정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코디마스터에 전화해 문의 드렸는데 너무 기초적인 것을 물어도, 이해 못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 물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2분기 접수를 받고 나니 완전 신세계가 펼쳐졌다. 엑셀로 부서별 내용을 내려 받은 후 학교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정리만 하면 가장 신경 쓰였던 회계업무가 마무리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실에 제출하고 나서 출석부와 강사활동부를 한 번에 출력하고 나니 깔끔하게 새로운 분기의 준비가 끝났다. 코디마스터가 없었다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마무리된 느낌이었다. 2분기가 시작되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 있었다. 과목별 수강인원 정리, 단수 인원 등 기본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상반기 만족도 조사, 표집단 만족도 조사!!!

코디마스터가 없었다면 설문지 작성, 설문지 배포, 통계까지 며칠을 고생해야 하는 일이 또 한순간 해결되었다.

만족도 응답기간에 미응답자에게만 다시 문자를 보내 응답률을 높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코디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제출용 양식을 만들어 제출하니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도 만족해하셨다.

3분기 접수부터는 과목별 전단지 교체, 기간별 출석부 양식 출력 등 다양한 코디마스터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이다.

내년 방과후학교 업무가 기대되게 만들어주는 코디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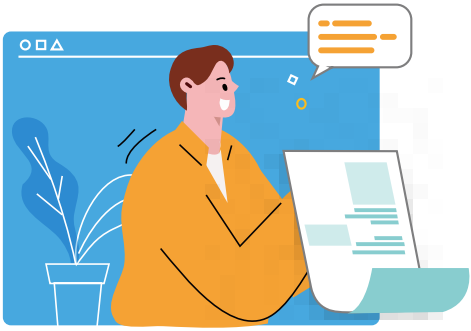
코디마스터의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알차게 활용하여 담당자로서 업무 만족도도 높이고,

학부모, 학교에서도 만족하는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주시고 커피 쿠폰을

주시는 소소한 기쁨도 주시는 코디마스터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인천 예송초등학교
한미현 선생님

2021년 방과후학교 관리 플랫폼 코디마스터를 만났다. 기존에 방과후 신청은 종이에 작성 후 추첨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다. 일찍부터 행정실 앞에 주을 서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근대적 광경에 학교는 물론 학부모, 방과후 강사 모두가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다.
드디어 코디마스터를 만나게 된 첫날의 방과후 신청은 모두가 편하게 핸드폰으로 클릭하고 원하는 요일과 과목을 1분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좋았던 것은 1분기부터 모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 출결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학생별 수강료 수강 관리가 클릭 한번으로 된다는 점이다.
학기 마지막에 하는 설문조사 역시 링크로 학부모 편에 보내고 결과 합산도 목록별로 가능해서 클릭 몇 번으로 학교에 제출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만족해했다.
사소한 거라도 질문을 하면 원격 및 답변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코디마스터 팀 덕분에 빨리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덕분에 복잡했던 방과후 코디라는 직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마지막으로 코디마스터 개발자 및 상담해주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인천 용학초등학교
이정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 용학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코디 업무도 처음인데 코디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습득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교육받았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았는지 코디마스터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아 전 줌 화면으로 보이는 교육을 열심히 들었죠.
근데 그거 아시죠?? 화면 속의 강사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해주시는데 제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 같은 기분.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 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줌 교육이 끝나가는 무렵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디마스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 힘드신거지 전혀 어려울 것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하시다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면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해결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걱정을 조금 덜어 주더라구요.
대망의 첫 출근 날.
코디마스터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죠. 전교생 정보를 받아 엑셀 자료 일괄등록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멘붕!
3월에 저는 로데브 고객센터와 사랑에 빠졌더랬죠.
(거의 여자 분이 받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가장 많이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하며 힘을 얻었어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드려도 차분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에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 되었구요.

일반 고객센터 하면 전화연결 어렵고 끝까지 기다려도 직원연결 안되고 끊기는 일도 있고...
로데브는 신호음 한번이면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첫 수강신청을 안내하고 접수 받고 무탈하게 1분기를 마칠 수 있었죠.
그게 올 3월이었는데 지금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네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큰 사고 없이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 코디마스터라는 좋은 프로그램과 로데브 직원 분들의 빠른 피드백 덕분인 것 같아요.

파주 금화초등학교
김용미 선생님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은 방과후코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방과 후 코디’ 업무를 약 5개월 동안 하면서 항상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의 편리함을 느껴왔습니다.

코디마스터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 관계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스템 활용 방법을 잘 알려주신 덕분에 매일 챙겨야 하는 방과 후 행정업무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달 전 쯤 방과 후 수강 신청 안내장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에게까지 잘 못 전송되면서 해당 학생이 전학 전 학교에 방과 후 수강을 신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는 해당 학생이 타 학교 학생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기에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학생을 찾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학생의 수강료 환불에 대해 코디마스터를 이용해서 해당 학생의 모든 수강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환불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점도 많지만, 위의 두 가지 사례가 방과 후 코디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느꼈던 코디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코디마스터‘는 프로그램 명칭답게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디마스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본 업무에 불필요하게 추가로 익혀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오해했었는데, 프로그램에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기존의 오해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학부모로 3년 전 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을 신청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할 때는 매 학기마다 문서로 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고, 만약 방과 후 수업을 중간에 취소라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직접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서 취소 신청을 해야 했기에 많이 불편하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코디마스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어 방과 후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코디네이터로서 매월 수강신청서 정리와 수강료 계산업무를 하다 보면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데, 중복작업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해 준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에 감사를 전합니다.

화성 세정초등학교
이화영 선생님

코디마스터와 성장한 방과후 마스터되다.

10여 년 전 수기로 접수를 받는 수강신청기간은 말 그대로 학교 강당이 시장통 보다 더 심한 전쟁 난리터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강사, 학부모 민원으로 전화 받기가 두려웠던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죠. 학교 측의 권유로 교육부 자체프로그램 방과후 나** 프로그램도 써 보았으나 수시로 뜨는 접속오류와 징수대장을 만들려면 번거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코디마스터와의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땐 영업팀의 시연회에서 반신반의하고 나름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실현이 될까 의구심도 들었고, 근무지역이 신도시로 민원 많기로 소문난 학교이기에 자칫 실수라도 하면 프로그램 사용 제안을 한 저는 대역죄인이 되는 거였죠. 코디마스터로 첫 수강신청은 제 스스로 희열을 느낄 만큼 대성공이었죠. 코디마스터는 억울하지만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하던 업무스타일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URL을 못 받았다고 당당하게 막무가내로 따지듯이 말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발송관리 문자 받은시간이 기록이 남으니 저 또한 민원 처리함에 있어 한결 더 편해졌답니다. 이렇게 코디마스터는 방과후학교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지금은 방과후업무의 마스터가 되었답니다.

지금 이 시기엔 23학년도 방과후계획 준비에 분주합니다. 위탁업체로 운영학교가 늘어나면서 제안서 평가 심사 시 저는 항상 관리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쓰는지 항상 질문에 포함시키며, 업체 코디 쌤들도 코디마스터 사용 교육은 제가 할 정도가 되었지요.

다들 맡기 싫어하는 방과후업무지만 코디마스터만 제 곁에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방과후업무 환영입니다.

햇병아리에 불과하던 저에게 코디마스터 프로그램과 그 시절 수백 번 통화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없이 해결해주던 조○인 대리님은 저에게 방과후분야에 마스터가 되게 해 주셨던 일등 공신입니다.

그 덕에 현재는 인근학교 담당자들에게 업무상담도 해주는 방과후 마스터가 되었답니다.

화성 솔빛초등학교
변은지 선생님

1. 사용 경험담

초등학교 방과후 코디에 대한 업무를 처음 맡아 처음 진행하는 업무에 긴장도 되었고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면서 방과후 업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숙지할 수 있었고 시스템을 사용하며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어 너무 좋습니다.

2. 에피소드

저희 학교는 모집방식이 "추첨"으로 진행되는 학교라 모바일 설정 시 모집방식을 "추첨"으로 진행해야하는데 "대기5명"으로 세팅을 해서 접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의 시작 시간에 전화가 폭주했고,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큰일이 생겼구나...앞이 깜깜했죠. 그런데 모집방식을 다시 추첨으로 변경을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코디마스터 상담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 장점

코디마스터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상담이 잘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은데 코디마스터 상담은 언제나 상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는 원격으로도 안내해주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상담선생님의 일처럼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코디마스터를 사용하면서의 어려움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4. 소감

코디마스터는 방과후학교를 관리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모두에게 편리하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되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방과후 관리시스템은 코디마스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친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디마스터 그리고 코디마스터 상담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화성 송린초등학교
박성환 선생님

1.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운영-회계 행정 절차를 간소화

방과후의 기준을 제시하다.

처음 방과후 보직교사를 맡으면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수험생처럼 수도 없이 공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본교에서 선착순 방식과 수기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인수인계를 받으며 접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간소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쫓아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운영, 회계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고 '코디마스터' 라는 프로그램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제안하였습니다.

코디마스터를 활용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코디마스터 고객센터에 질문도 많이 했고 프로그램 매뉴얼을 읽고 또 읽고, 찾아보고, 메모하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직관적이고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친절하셔서 금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가장 민원 소지가 많은 내용 중 하나는 수강 신청 방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수강 학생을 선정하니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고 한결 간편하였습니다.

2. 방과후학교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및 투명한 회계 시스템 정착

- 수기로 신청서를 수합하고 추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 민원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모바일 출석부, 설문조사 활용으로 방과후 강사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기피 업무 인식을 탈피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방과후 환불방안을 마련하고 코디마스터 SMS 발송 메뉴를 통하여 수업 및 환불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하였다.
- 학부모 설문조사, 강사 의견수렴, 소식 공유 등 코디마스터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와 환불·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하였다.

3. 인천 학교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통한 코디마스터 운영 사례 공유

-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본교에 인접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요청하여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하다.

1)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수강 추가·취소-스쿨뱅킹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2) 코디마스터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도입 시 예상되는 질문·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코디마스터 회계처리 방법 및 수강신청 과정 중 예상되는 민원 대응 방법 안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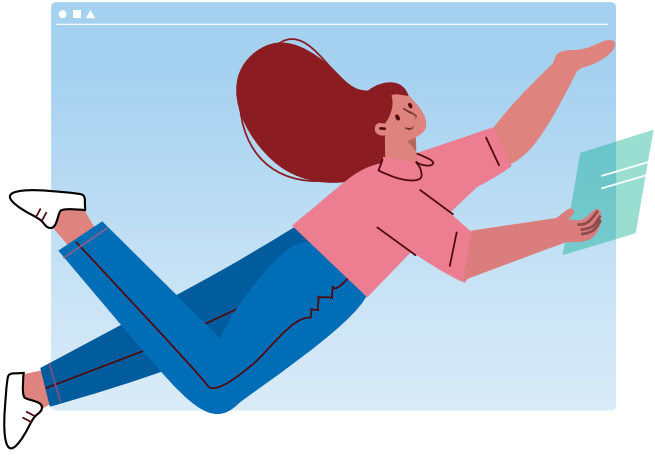
서울 구로초등학교
오선영 선생님

2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편한 듯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녀의 입시를 무사히 마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전력질주하며 달려온 시간들이 보람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 낯선 듯 어색한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로움이 찾아오면서 무언가 도전하고픈 생각으로 일을 찾아 일에 대한 갈망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도전은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며 마음도 위축되고 준비 없이 지내온 시간들에 자책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 방과후 코디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고 다소 저에게 생소했던 방과후 코디 일에 첫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첫 날부터 당황의 연속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저희학교는 수강 신청 후 코디마스터 프로그램을 시작해 사용했기에 아무 도움 없이 수강신청을 받는작업이 코디 초보인 저에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는 다른 일도 많은데 코디마스터프로그램을 배워서 다루어야 한다는 게 부담감도 무척이나 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도 찾아 꼼꼼히 읽어보고 줌으로 설명해 주신 동영상도 여러 번 돌려 보면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실행 보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모르면 무조건 콜센터에 전화 드리면담당자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프로그램사용법도 터득해 가면서 덕분에 방과 후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게 되었고 확실히 업무량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 강사료 산출이나 만족도 조사 등 간편하고 편리하게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일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일하는 저를 많이들 부러워하며 저 또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즐겁게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을 하면서 이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과 보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며 자아실현으로까지 이어져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 년이 안 되는 시간동안 한편의 성장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고 싶습니다. 매일 나의 자리에서 함께 하며 소중한 힘이 되어준 코디마스터에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코디마스터 내년에도 더 큰 성장을 기대하며 LODEV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해 봅니다.



CODI MASTER

로데브(주) 코디마스터 · 홈페이지: cm.lodev.kr

(우) 1405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B-F908 (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TEL. 070-7733-8785 · FAX.070-4009-5900